

HUG 태클에 분양 미뤄지고... 결국 '로또 청약' 부작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위례·분당 등 줄줄이 연가 분양가 110% 넘는 아파트 통제 서울 64%·경기 83% 실적 그쳐 특정아파트만 몰려 경쟁 더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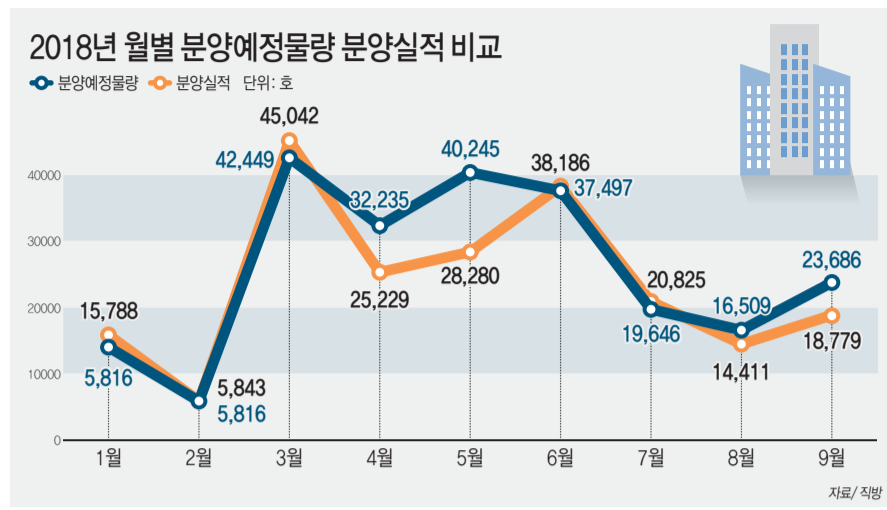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주책시장이 흑한기에 진입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는 HUG와의 분양가 싸움으로 분양 일정이 대거 미뤄지면서 수급 불균형,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분양가 협상 어려워 '연기 또 연기'

7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위례, 성남, 과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분양이 미뤄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려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HUG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HUG는 주택매매가 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주변 시세의 110% 초과 등)에 대해선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하는 셈이다.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시행사와 HUG의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예정했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전농동 청량리4구역 재개발 단지)'다. 청량리 일대는 올 여름 '청마용성(청량리·마포·용산·성동)'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져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에 대한 분양가 협상이 결렬되며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조합은 3.3㎡당 2600만원 선을 원하지만, HUG는 230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e편한세상 용두5구역', 은평구 응암동 '현대힐스테이트 응암1구역',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동작구 '사당3구역 푸르지오', 동대문 용두5구역 재개발 단지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등'도 분양이 연기됐다.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의 경우 조합은 3.3㎡당 2400만원선을 원하는 반면, HUG는 그보다 100만~200만원 더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때 이른 흑한기를 맞았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9월 분양 실적은 21만2383가구로 지난해

꼼수 분양가 선정 금지시켜주세요
[정원시작: 2018-11-04] [정원마감: 2018-12-04] [정원인원: 96]
분양가 폭등! 지역별 사상 최고가 분양가 확정! 부동산 거품은 분양을 허용하고 분양가 급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폭
HOME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꼼수 분양가 선정 금지시켜주세요
[정원시작: 2018-11-04] [정원마감: 2018-12-04] [정원인원: 5]
HUG,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는 적폐투기세력과 야합 꼼수 분
서민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멎들게 하는 이런 꼼수가 더 이상 발
HOME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지 말아주세요.
[정원시작: 2018-10-12] [정원마감: 2018-11-11] [정원인원: 27]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HUG의 분양보증제한에 대한 청원글 캡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래미안 리더스원' 사례가 그렇다. 서초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리더스원'은 HUG와의 분양가 싸움에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분양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16일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4489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3.3㎡당 100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6억~8억원 가량 싸다. 당첨만 되면 일반아파트 1채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기대감에 지난 6일 진행된 래미안 리더스원 1순위 청약엔 1만명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59타입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422.2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 있어야만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부자들의 로또를 향한 열기를 증명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높여도 돈 있는 사람은 사서 결국엔 시세차익을 본다"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HUG에서 가격을 통제한 결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고용서비스선진화를 이끌어갈 2018년 하반기 인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연구·정보화·경영 분야에서 5급 신입직원으로 19명 내외를 선발하고 연구 부문은 청년 고용, 노동시장분석, 일자리사업평가 관련 연구·실무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정보화분야는 빅데이터 구축, 웹사이트개발, 정보보안, 시스템운영 관련 업무능력 보유자를 모집하며, 경영 분야에서는 실무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를 뽑는다.

채용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대면 면접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입사 희망자는 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까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필기 및 면접 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진행되며 채용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전형이 블라인드로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원 인사교육팀 (043-870-8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국산 쌀스낵, 中 영유아 입맛 잡는다”

aT '미래클 K-Food 유기인증' 2000만원 상당 725박스 수출

미래클 K-Food 유기인증 쌀스낵이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청담에서 '미래클 K-Food 쌀스낵 대 중국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 쌀스낵 제품은 한국산 쌀가공식품 최초로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한 '레인보우 불' 제품을 비롯해 집과 소프트바 등 총 14종의 제품이다.

2000만원 상당의 725박스가 수출되며 우리 쌀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aT에서는 작년에 수출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 곡성산 유기농 쌀과 레인보우 불 영유아 쌀스낵 5개 제품에 대해 쌀제품으로는 최초로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중국 상하이 소재 영유아식품 전문 바이어인 장화국제무역유



지난 5일 수출 기념식에서 수출품 박스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장화국제무역 김재웅 대표(왼쪽부터), aT 백진석 부사장, 손금주 의원, (주)청담은 김영식 대표, 장화국제무역 주정 총리. /aT

한공사와 매칭해 중국 수출이 성사됐다.

미래클 K-Food 프로젝트는 미래에 클 가능성이 높은 한국 고유의 차별적 가치를 지닌 유망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세성, 경험부족 등으로 수출과 이어지지 않는 신규 품목을 aT가 발굴하여 한국 고유의 수출유망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스낵은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시장인 강소성, 절강성 내 121개 영유아용품 전문점에 14개 품목이

한꺼번에 입점돼 각 매장별로 신규입점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진석 aT 부사장은 "국내산 유기농 쌀을 원료로 만든 영유아 쌀스낵처럼 한국 고유의 차별적 가치를 지닌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공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aT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 클 가능성이 높은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aT의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장애인고용공단, 고용패널 학술대회 열려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 등 발표·토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학술대회는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 동안 치러진 대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증진방안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이 160여 편 이상 발표됐으며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다수 도

출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기획주제 발표와 함께 노동시장 정책, 고용안정, 고용서비스, 고용과 삶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2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장애인고용분야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연구논문을 발굴,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편의 우수논문 시상과 함께 최우수 논문에 대한 발표도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장애인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인력공단, 獨 취업정보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부터 8일까지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독일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독일 취업정보 설명회 'German Career Day 2018'을 개최한다.

독일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entrale Auslands- und Fachvermittlung)는 독일 연방고용청 소속기관으로 자국 기업의 외국인 채용 서비스와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해외 전문인력에게 취업정보와 알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독일의 취업시장 환경과 취업전략, 직업훈련제도와 대학교육, 취업사례 발표 등 독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연에는 한독상공회의소 안트예 레제시(Antje Resech) 부사장,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 하이크 보끄만(Heike B

orgmann) 컨설턴트, 독일고등교육진흥원 이호경 박사 등 독일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독일 IT기업인 블루네트웍스(Blue Networks)와 우가(Wooga)가 참여해 사전 구직등록 후 서류전형에 합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사전 구직등록자들은 설명회가 끝나도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를 통해 1:1 컨설팅 서비스와 취업알선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